

대중가요와 K-pop을 통해 본 춘천의 감성 자원과 문화적 변이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Emotional Resources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f Chuncheon through Korean Popular Songs and K-pop:

Focusing on Its Potential as a Glocal Platform City

김윤희^{••}

국문요약 본고는 대중가요와 K-pop을 중심으로 춘천의 감성 자원이 형성·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서 춘천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발표된 〈소양강 처녀〉, 1989년 발표된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최근 K-pop과 연계된 춘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양강 처녀〉는 소양강의 자연 이미지에 기다림과 그리움, 상실의 정서를 결합하여 춘천의 감성적 장소성을 형성하였으며, 〈춘천 가는 기차〉는 이동과 회상, 청춘의 기억을 통해 춘천을 사랑과 추억의 감성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두 노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춘천의 감성 자원을 축적하고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오늘날에는 K-pop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지역의 의미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BTS와 트와이스의 사례는 춘천의 장소가 글로벌 팬덤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새롭게 가시화되고 의미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대중가요를 통해 형성된 감성 자원이 오늘날 영상·팬덤·관광·디지털 매체가 결합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화적 변이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춘천의 감성 자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형성·확장되어 왔음을 밝혔다. 특히 K-Culture의 세계적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축적을 바탕으로 춘천이 지역성과 세계성이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춘천, 감성 자원, 장소성, 문화적 변이, 대중가요, 시적 노래, K-pop, 글로벌 플랫폼

- 차례**
1. 서론
 2. 대중가요에 보이는 춘천의 감성 자원과 문화적 변이
 - 2.1. 〈소양강 처녀〉와 감성적(感性的) 장소성의 형성
 - 2.2. 〈춘천 가는 기차〉에 보이는 시적(詩的)인 감수성의 확산
 3. K-pop 현상을 통해 본 춘천의 글로벌 플랫폼 가능성
 4. 결론

1. 서론

최근 K-pop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음악 산업의 성장 차원을 넘어, 특정 지역과 장소가 글로벌 문화 경험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소비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초국적 플랫폼을 통해 향유되는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콘텐츠에 한정되지 않으며, 음악·영상·관광·팬 문화·디지털 플랫폼 등이 상호결합되는 복합적 문화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특정 지역성 역시

• 위 연구는 국립경국대학교 글로벌대학추진단 인문학연구소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국립경국대학교 인문사회·IT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감정과 기억, 이동 경험과 팬 실천이 중첩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문화적 장소로 기능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강원도 춘천은 이러한 문화적 변이 과정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본고는 장소성을 고정된 지리적 속성이라기보다 대중문화의 생산과 향유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 감정과 기억, 경험이 축적되며 형성되는 문화적 의미로 보고, 대중가요에서 K-pop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춘천의 감성 자원과 장소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축적이 지역성과 세계성이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서 춘천의 문화적 가능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학술적 연구사를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대중음악과 장소의 상관성을 연구한 논의들이 보다 활발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Lily Kong은 대중음악이 특정 장소의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라고 설명하면서 음악이 장소의 기억과 감정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¹ 또한 Sara Cohen은 리버풀과 비틀즈의 관계를 분석하며, 대중음악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² 이어 Philip Long은 셰필드(Sheffield)를 사례로 대중음악이 단순히 특정 장소를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관광과 팬 경험, 장소 기억의 재생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대중음악이 특정 장소를 문화적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음악과 장소가 상호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³ 오늘날 K-pop이 글로벌 팬 문화와 현실 공간 경

험을 매개로 특정 장소를 다시 호출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 현상 역시 이러한 논의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중가요와 장소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소략하게 진행된 바 있는데 손정삼은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을 분석하면서, 지역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과 문화적 기억을 호출하는 기호로 기능함을 지적하였다.⁴ 또한 장유정은 1970~80년대 서울 관련 대중가요 연구를 통해 특정 도시가 시대별 감수성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상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⁵ 이어 반야월 작사가에 대한 연구⁶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가 향토성과 서민 정서, 지역 감수성의 대중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그는 대중가요에서 단순한 배경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 감정을 조직하는 정서적 기호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장소를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70년에 발표된 〈소양강 처녀〉(반야월 작사, 이호 작곡)는 춘천이라는 지역을 전국적 감성 자원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한 대표적 노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노래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소양강은 이별과 기다림의 감정이 투사되는 장소로 의미 부여가 되면서 춘천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중가요의 인기가 지역의 감성 자원과 결합되어 문화적 장소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춘천이 한국 문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발표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는 이전 세대의 향토적 장소 표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춘천을

1 Lily Kong, "Popular Music in Geographical Analys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2), 1995, pp.183~198.

2 Sara Cohen, *Rock Culture in Liverpool: Popular Music in the Ma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1.

3 Philip Long, "Popular Music, Psychogeography, Place Identity and Tourism: The Case of Sheffield," *Tourist Studies* 14(1), 2014, pp.48~65.

4 손정삼,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장유정, 「1970~80년대 서울 관련 대중가요의 두 모습」, 『한국문화와 예술』 10, 한국문화와 예술연구소, 2012, 121~145쪽.

6 장유정, 「대중가요 작사가 반야월 작품 연구」,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화학회, 2013, 319~353쪽.

재구성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만하다. 김현철이 직접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경춘선과 기차 이동 경험, 개인적 회상과 감정을 중심으로 춘천을 청춘과 기억의 장소로 의미화하며, 이는 집단적 감정과 향토성을 중심으로 장소를 형성하던 기존 대중가요와는 다른 감수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경춘선과 기차 여행의 감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ITX-청춘과 경춘선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를 직접 언급하며, 경춘선과 춘천이 지닌 청춘과 여행의 감각을 대표하는 문화적 코드로 활용하고 있다.⁷ 또한 경춘선과 북한강을 따라 형성된 기차 이동의 경험은 최근의 레트로 감성과 여행 콘텐츠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맥락화되고 있는데 이는 〈춘천 가는 기차〉라는 대중가요가 여전히 이동과 회상, 청춘의 감각을 매개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⁸ 이러한 점에서 〈춘천 가는 기차〉 또한 서울에서 춘천으로의 이동 경험과 청춘 감성을 현재적 문화 소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성 자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최근 K-pop 현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단순히 시대별 대표곡으로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두 노래는 모두 춘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도 장소를 의미화하는 방식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이라는 구체적인 자연 공간에 기다림과 그리움의 감정을 결합하여 장소를 기억하게 했다면, 〈춘천 가는 기차〉는 춘천의 구체적 경관보다 그곳으로 향하는 이동과 청춘의 회상을 통해 장소에 대한 감각을 형성

하였다. 이에 비해 최근 K-pop에서는 특정 지역이 노랫말에 직접 호명되기보다 영상 콘텐츠와 팬들의 방문, 디지털 공유 등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고 의미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 선정한 사례들은 춘천의 모든 대중문화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지역의 감성 자원과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의 노랫말을 중심으로 춘천의 장소와 결합된 감정과 기억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당 노래의 대중적 향유와 리메이크,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최근 K-pop과 춘천이 결합하는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이 노랫말 중심의 의미화에서 영상 콘텐츠와 팬덤의 이동, 디지털 공유를 통한 경험적 의미화로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가요와 K-pop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춘천의 감성 자원이 형성·변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적 축적이 지역성과 세계성이 접속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서 춘천의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대중가요에 나타난 춘천의 감성 자원과 문화적 변이

2.1. 〈소양강 처녀〉와 감성적 장소성의 형성

193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가요에서는 특정 지역명을 제목으로 내세운 노래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1953년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1954년 현인의 〈서울야곡〉, 1956년 이해연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1958년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1969년 패티

7 한국관광공사, 「ITX 타고 가평·강촌·춘천 즐기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7a3fa5e3-e083-413c-9c80-34e0cda6ea2a

8 「춘천 가는 기차는 추억을 싣고 사라지네」, 『시사IN』, 201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4>

김의 〈서울의 찬가〉 등에 보이는 지역성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 산업화와 이촌향도 과정에서 형성된 이별과 향수, 상실과 기다림, 도시적 동경과 회귀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환기하는 문화적 기호로 기능하였다. 이들 작품에서 지역명은 특정한 장소를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의미가 아닌, 대중들이 공유하던 시대적 경험과 집단적 감정을 응축시키는 일종의 문화적 장치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래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향유되고 애창되었다는 사실은 지역명이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환기하는 정서적 기호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대중적 향유는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감성 자원으로 축적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술 연구사를 보아도 김일림·강옥희는 1950~60년대 대중가요 속 서울의 장소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적 감정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 정체성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⁹ 또한 부산 관련 대중가요 연구에서 부산이 항구와 피란, 이산과 디아스포라의 기억을 집약하는 장소로 재현된다고 분석된 바 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근대 대중가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향’의 정서라는 성과도 참조해 볼 만하다. 근대 식민지 경험과 산업화 속에서 대중가요의 ‘고향’이 상실과 향수, 회귀 욕망을 환기하는 핵심적 정서 구조로 작동했으며¹¹ 조명암의 대중가요 사례 역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속 고향이 현실의 궁핍과 유랑 속에서 상실된 장소이자, 끊임없이 회귀를 꿈꾸게 만드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의미화되었다.¹² 이처럼 근현대 대중가요에

서 등장하는 지역이나 장소는 상실과 향수, 유랑과 회귀의 감정과 연계되면서 대중적 공감과 정서적 환기의 기능을 담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야월(1917~2012)은 지역명을 감정의 장소로 전환시킨 대표적 작사가로 평가된다. 그는 〈소양강 처녀〉,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을 통해 특정 장소를 감정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작사가이다. 이러한 반야월의 작사 방식은 특정 지역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에 대중의 감정을 결합하여 하나의 기억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장유정¹³은 반야월 연구에서 그의 작품 세계가 단순한 향토적 정서에 머무르지 않고, 낭만적 경향과 사실적 경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반야월의 노래는 실제 지명과 구체적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과 장소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향수와 회고, 그리움의 정서를 결합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임을 분석하였다. 반야월의 노랫말은 이호의 작곡과 가수의 가창을 통해 대중음악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이 노래가 형성한 장소성은 작사가 개인의 장소 인식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노랫말과 선율, 가창이 결합된 대중음악의 형식과 이후 반복적인 청취·가창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양강 처녀〉의 장소성은 노랫말의 서정적 표현과 음악적 요소가 결합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향유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양강 처녀〉는 1970년 발표 이후 약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후 여러 세대의 가수들에 의

9 김일림·강옥희, 「1950년~60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 『경관과 지리』 30(4), 한국사지리학회, 2020, 113~125쪽.

10 김근자, 「대중가요에 나타난 부산항의 장소성」,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2023, 283~318쪽.

11 민경찬, 「한국 근대음악과 ‘고향’」,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75~99쪽.

12 서영희, 「조명암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고향의식」,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401~430쪽.

13 장유정, 「대중가요 작사가 반야월(半夜月) 작품 연구」,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319~353쪽.

해 지속적으로 리메이크되고 애창되면서 오랫동안 대중적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초 노래방 문화의 확산 과정에서도 높은 애창곡 순위를 기록하였으며¹⁴ 오늘날에도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춘천을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소양강 처녀〉는 오랜 기간에 걸친 대중적 향유를 통해 춘천의 감성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노래를 통해 축적된 장소의 문화적 기억이 오늘날 지역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양강 처녀〉는 춘천이라는 도시 전체보다 ‘소양강’이라는 구체적인 자연 공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춘천을 직접적으로 표상하기보다 소양강이라는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황혼과 갈대밭, 두견새 등의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장소의 서정성이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즉 이 노래는 춘천의 지역성을 직접 설명하거나 재현하기보다 소양강이라는 자연 공간에 특정한 감정과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춘천의 감성적 장소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양강은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의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은 노랫말의 서정적 정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양강 처녀〉는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로 시작한다. 황혼과 갈대밭, 두견새는 모두 하루의 끝과 계절의 변화, 이별의 정서를 환기하는 전통적인 자연 이미지로, 이들이 소양강이라는 공간과 결합하면서

상실과 기다림의 감정을 담아내는 정서적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황혼’은 하루가 저무는 시간성을, ‘두견새’는 이별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소재로 기능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찌나”라는 가사는 개인적 사랑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이는 특정 여성의 사적인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산업화와 이혼향도가 본격화되던 1960~70년대에는 생계와 취업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동과 이별의 경험 역시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현실이었다. 물론 〈소양강 처녀〉의 노랫말을 이러한 사회현상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여성 화자의 정서와 반복되는 부재의 감각은 당시 대중이 경험했던 이동과 이별의 현실과 접속하면서 보다 폭넓은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랫말의 사랑과 기다림은 개인적 연애 서사를 넘어 당대의 사회적 경험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감정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절의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역시 이러한 정서를 더욱 심화시킨다. 계절은 반복되지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다 멎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나는 어찌나”라는 후렴의 반복은 기다림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는 삶의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소양강 처녀〉의 장소성은 노랫말에 형상화된 서정적 감정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양강이라는 실제 공간을 경험하지 않은 청자라 하더라도 노랫말에 반복되는 이별과 기다림의 정서를 자신의 기억과 연결하여 수용할 여지가 있었으며, 노래의 장기간에 걸친 대중적 향유는 이러한 정서

14 1992년 노래방 인기곡 1위 기록은 반야월 관련 회고 기사와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소양강 처녀」는 노래방이 대중화된 1992년 노래방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발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높은 대중적 인기를 유지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https://ichannela.com/news/detail/45095763-3.do?utm_source=com.

15 한국관광공사, 「소양강처녀상」 관광정보,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85530e76-8914-4d36-a1a6-d2687db06598

적 동일시가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양강은 특정 지역의 자연 공간을 넘어 다양한 개인적 기억과 감정이 결합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춘천의 감성 자원이 축적되는 하나의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양강 처녀〉의 사례는 이후 〈춘천 가는 기차〉에서 춘천의 장소 감각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문화사적 출발점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춘천 가는 기차〉에 보이는 시적(詩的)인 감수성의 확산

앞서 살펴본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이라는 자연 공간에 이별과 기다림, 향수의 정서를 결합함으로써 춘천의 감성적 장소성을 형성하였다면, 1989년 발표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는 경춘선이라는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춘천을 청춘과 회상,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 교차하는 장소 감각으로 재구성하게 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소양강 처녀〉에서 장소는 감정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면, 〈춘천 가는 기차〉에서는 춘천이라는 목적지보다 그곳으로 향하는 이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정과 기억이 더욱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춘천 가는 기차〉가 오랫동안 향유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노랫말의 서정성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노래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조금은 지쳐 있었나봐”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 피로감을 드러낸다. 이어 별다른 계획 없이 올라탄 기차가 춘천행임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나간 사랑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따라서 춘천행은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 계획된 여행이라기보다, 쫓기듯 살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즉흥적 이동에 가깝다. 또한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라는 표현은 이 여행이 타인과 함께하는 낭만적 관광이 아니

라,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성찰하는 내면적 여정임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기차 또한 교통수단의 의미를 넘어 현재와 과거, 현실과 기억을 연결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춘천 가는 기차〉는 김현철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가창한 노래라는 점에서 노랫말에 나타난 개인적 회상의 정서와 음악적 표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제된 가창과 비교적 담백하게 전개되는 음악적 분위기는 지나간 사랑을 회상하는 노랫말의 서정성을 부각시키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화자의 고독과 내면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이 노래가 형성하는 춘천의 장소 감각은 노랫말의 의미만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작사·작곡·가창이 결합된 음악적 표현과 대중의 반복적인 향유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5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이라는 표현은 이 노래의 장소 감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5월’은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봄의 절정이자 청춘과 첫사랑을 상징하는 시간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상징성은 ‘춘천’이라는 지명이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봄의 계절감과 결합되어 과거의 사랑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기억의 장소로 전환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노래를 통해 춘천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청춘과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감성적 공간으로 시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감수성은 춘천이라는 지역을 직접 설명하거나 재현하지 않더라도 장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청자가 자신의 첫사랑이나 청춘의 기억을 화자의 감정과 연결하여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반복적인 향유를 통해 춘천을 청춘과 회상을 환기하는 문화적 이미지로 공유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춘천 가는 기차〉의 노래를 통해 형성된 장소성은 춘천이라는 지명과 봄

의 이미지, 경춘선의 이동 감각, 청춘의 유동적이고 불안한 사랑의 기억이 결합된 시적 상상력을 통해 형성된 장소 감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봄의 이미지는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라는 구절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노래의 서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생명력이 충만한 ‘5월의 사랑’이 청춘과 희망을 상징한다면,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은 사랑이 지나간 뒤 찾아온 겨울의 시간과 상실의 정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끝없는 철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의 축으로 기능하며, 화자는 그 길 위에서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자신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결국 봄과 겨울의 계절적 대비는 청춘과 사랑이 지닌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것이 결국 지나가고 마는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절에서 “차창 가득 뽕얇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 보니/ 흘러가는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라는 구절 역시 시간의 흐름을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차창에 서린 입김을 닦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지만, 변함없이 흐르는 한강과 달리 자신의 삶과 사랑은 이미 달라졌음을 자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차창은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기억을 투영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자연과 변화한 인간의 삶을 대비시키는 시적 장치가 된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녁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라는 자조적 표현은 화자의 춘천행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라기보다, 상실의 감정을 잠시 위로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짧은 일탈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춘천 가는 기차〉는 춘천의 풍경을 직접 묘사하지 않으면서도 봄과 겨울, 사랑과 상실,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시적 이미지를 통해 춘천이라는 장소를 청춘의 불완전한 사랑과 쓸쓸한 기억이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든 노래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에서 춘천의 구체적인 지역 경관이 직접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자는 춘천의 풍경이나 특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실제로 춘천에 도착한 이후의 경험도 제시하지 않는다. 노래가 집중하는 것은 ‘춘천에 가는 기차’ 안에서 형성되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청춘의 감성이다. 다시 말해 이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인 춘천 자체보다 춘천으로 향하는 이동의 과정이며, 이러한 이동의 경험이 춘천이라는 장소에 새로운 감성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춘천 가는 기차〉는 장소를 직접 재현하기보다 장소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 감정과 기억을 결합함으로써 춘천의 장소 감각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이는 대중가요가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이동과 기억, 정서적 경험을 매개로 지역의 감성 자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가능성으로 인해 〈춘천가는 기차〉는 이후 여러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었는데 조성모는 2000년 리메이크 앨범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다시 불렀고, 불독맨션은 2001년 『인디파워』에서 이 곡을 모던 록 감각으로 편곡하였다. 특히 불독맨션의 버전은 원곡의 보사노바적 회상성을 청량한 밴드 사운드로 바꾸어, 경춘선의 낭만을 새로운 세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태연은 2019년 〈월간 윤종신〉 ‘별책부록’ 프로젝트에서 이 곡을 시티팝으로 편곡해 불렀고, 이는 1980년대 말 경춘선 감성이 2010년대 레트로·시티팝 감수성과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원곡이 1980년대 말 청춘의 피로와 회상을 담백한 감수성으로 담아냈다면, 조성모의 리메이크는 2000년대 초반 발라드 감성 속에서 이 노래를 재호출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좀더 강조하였다. 또한 불독맨션의 버전은 인디밴드적

청량감으로, 태연의 버전은 레트로 시티팝 감각으로 새롭게 변주하였다. 이처럼 〈춘천 가는 기차〉는 노래가 지닌 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세대마다 새로운 음악적 감각과 결합하면서도, 춘천을 청춘과 사랑, 회상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사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노래 문화를 향유하는 세대의 감수성이 변화하면서 〈춘천 가는 기차〉의 감수성 또한 일부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춘천 가는 기차〉의 영향은 대중음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다. 경춘선 자체가 청춘과 낭만, 대학생 MT와 여행의 기억을 환기하는 문화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춘천 가는 기차’는 하나의 관용적 이미지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생활사박물관의 〈경춘선, 엠티의 추억〉 전시는 경춘선을 7080세대의 청춘과 MT 문화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바 있으며, 춘천 문화재단 역시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콘셉트로 한 부스를 구성해 춘천의 낭만과 아날로그 감성을 전면화하였다. 이는 〈춘천 가는 기차〉가 노래를 넘어 문학·전시·출판 문화의 장에서도 춘천을 상징하는 감성 기호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천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오래전부터 경춘선을 통한 기차여행과 대학생 MT, 봄나들이 등의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험은 〈춘천 가는 기차〉가 표현하는 회상과 설렘,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정서와 결합하면서, 춘천을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청춘과 여행, 새로운 출발을 연상시키는 감성적 장소로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춘천이라는 지명에서 연상될 수 있는 봄의 계절감과 젊음의 이미지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 청춘의 감각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하나의 문화적 장소성을 형성하였으며, 〈춘천 가는 기차〉는 이러한 장소 감각을 개인의 회상에서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으로 확장시킨 대표적인 대중가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래가 춘천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춘천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경험과 대중가요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춘선을 통한 기차여행과 대학생 MT 등 춘천을 둘러싸고 축적되어 온 문화적 경험은 〈춘천 가는 기차〉의 이동과 회상, 일탈의 정서가 대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현실적 배경을 제공하였으며, 반대로 이 노래는 춘천에 청춘과 이동, 회상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덧입히면서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 가는 기차〉는 장소와 대중가요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의 감성 자원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문화적 기억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3. K-pop 현상을 통해 본 춘천의 글로벌 플랫폼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양강 처녀〉는 소양강이라는 자연 공간에 기다림과 향수의 정서를 결합함으로써 춘천의 감성적 장소성을 형성하였으며, 〈춘천 가는 기차〉는 춘천이라는 지역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청춘과 이동, 회상의 감각을 통해 춘천의 장소 감각을 새롭게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노래가 서로 다른 시대의 감수성과 결합하며 춘천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는 점은 춘천의 감성 자원이 시대에 따라 변이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K-pop은 이러한 장소성의 형성 방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대중가요가 주로 국내 대중을 향유 대상으로 삼았다면 오늘날 K-pop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팬덤을 대상으로 생산·유통되는 초국적 문화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음악의 생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대중가요가 〈소양강 처녀〉, 〈춘천 가는 기차〉와 같이 특정 지역명을 제목이나 노랫말에 직접 제시하며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였다면, 최근 K-pop에서는 특정 지역명을 직접 노래하기보다 뮤직비디오, 자체 영상 콘텐츠, 공연과 팬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자체를 직접 노래하기보다 한국이라는 문화적 이미지를 세계 팬들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초국적 수용자의 형성은 한국의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춘천은 이러한 현상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험한 지역이기도 하다.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주요 촬영지였던 춘천과 남이섬에 해외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한류 팬들이 드라마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순례’형 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감정과 기억을 현실의 장소에서 다시 경험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초국적 유통이 수용자의 실제 이동으로 이어지고, 다시 특정 지역의 문화적 의미와 장소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한류의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연가〉를 통해 나타난 춘천의 장소 경험은 이후 K-pop 시대에 영상 콘텐츠와 글로벌 팬덤의 이동이 결합하여 장소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K-pop 현상을 보면 이와 유사하지만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지역의 장소성이 재구성되고 있다. 오늘날 K-pop에서는 특정 지역명이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에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자체 영상 콘텐츠, 공연과 팬 투어, 아티스트의 활동

공간 등 음악 외적인 요소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장소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 대중가요가 노랫말과 선율을 통해 특정 장소에 감정을 축적하였다면 오늘날 K-pop은 영상과 팬덤의 참여, 관광과 SNS 공유를 통해 장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pop 시대의 장소성은 더 이상 가수나 가사를 통해서만 형성되지 않는다. 영상의 시청과 촬영지 탐방, 팬들의 방문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경험의 공유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소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즉 장소의 문화적 의미는 음악·영상·팬덤·관광이 상호작용하는 확장된 콘텐츠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며, 이러한 변화는 춘천의 감성 자원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적 변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BTS의 RM과 뷔의 전역 행사는 춘천이 초국적 팬덤의 실제 이동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사람은 2025년 6월 10일 춘천 신북읍 체육공원에서 전역 인사를 하였는데 당시 국내 팬뿐 아니라 멕시코·튀르키예·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온 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전역 소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춘천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로 이동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팬들이 현장 사진과 영상, 방문 경험을 SNS와 유튜브 등에 공유하면서 춘천은 BTS의 전역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전 세계 팬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이 사례에서 춘천의 장소성은 지역이 사전에 기획한 관광 서사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K-pop 스타의 공적 사건과 팬들의 초국적 이동, 디지털 기록과 공유가 결합하면서 자발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20년 공개된 BTS 자체 리얼리티 프로그램 〈In the SOOP BTS ve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춘천시 사북면의 레이크192(Lake 192)에서 촬영되었으며, 공개 직후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후 해당 장소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BTS 촬영지로 소개될 만큼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장소로 의미화되었다. 이는 노랫말이나 공연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자체가 특정 지역의 장소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팬들의 실제 방문과 디지털 공유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트와이스의 〈ONE SPARK〉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춘천대교 역시 K-pop의 영상 콘텐츠가 지역의 도시 경관을 새롭게 가시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에서 멤버들은 불꽃이 펼쳐지는 춘천대교 위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 장면에서 춘천대교는 지역의 일상적 교통시설을 넘어 음악과 안무, 야경과 불꽃의 시각적 이미지가 결합된 공연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뮤직비디오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시청됨에 따라 춘천대교의 이미지는 지역 주민에게 익숙한 도시 경관을 넘어 세계 팬들이 공유하는 K-pop의 시각적 장소로 확장된다. 특히 노랫말에 춘천이 직접 제시되지 않더라도 영상 속 경관과 촬영지 정보의 검색을 통해 지역이 새롭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는 대중가요 시대와 구별되는 장소성 형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양강 처녀〉가 산업화 시기 대중의 향수와 상실감을 소양강이라는 자연 공간에 결합하여 춘천을 집단적 기억의 장소로 형성하였다면, 〈춘천 가는 기차〉는 이동과 회상의 감각을 통해 춘천을 개인적 경험과 청춘의 장소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오늘날 K-pop은 영상의 반복적 노출, 팬들의 실제 방문, 촬영지 탐방과 SNS 공유를 통해 춘천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재인식하게 한다. 즉 춘천의 장소성은 노래를 통해 기억되는 장소에서 이동을 통해 경험되는 장소로, 다시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재구성되는 장소로 확장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춘천의 감성 자원이 플랫폼화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을 확인케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에는 특정 노래가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대중의 기억에 각인하는 것이 장소성 형성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음악과 영상, 팬덤과 관광, 디지털 플랫폼이 상호 연결되면서 장소의 이미지와 경험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장소를 방문하고, 방문 경험을 다시 콘텐츠로 제작한다. 따라서 팬은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공동 생산하고 유통하는 참여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적 구조에서 춘천은 완성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팬들의 이동과 해석, 콘텐츠 생산에 따라 의미가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개방적인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류 관광 연구는 초국적 팬덤의 이동과 장소 소비를 K-pop과 관광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Hur와 Kim은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해외 팬들로 하여금 드라마와 K-pop 등과 관련된 실제 장소를 방문하도록 이끌며, 이러한 이동이 한국을 향한 ‘역방향 대중문화 관광(contraflow pop-culture tourism)’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¹⁶ 이들의 연구는 팬들이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지와 공연장, 문화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한국 문화와 장소를 경험하는 관광 형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소 경험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장된다. 팬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팬 커뮤니티 등에 방문 사진과 영상, 위치 정보,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팬들의 방문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관

16 JungYun “Christine” Hur and Tony Kim, “Understanding Contraflow Pop-Culture Tourism: The Case of Transnational Fandom of South Korean Pop-Culture and the ‘Hallyu’ Tourism,” *Journal of Tourism Insights* 10(1), 2020, Article 4.

광지가 아니었던 촬영지나 체류 공간도 팬덤 내부에서는 상징적인 장소로 새롭게 의미화되며, 콘텐츠와 실제 공간이 결합된 문화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따라서 오늘날 장소성은 콘텐츠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방문과 해석, 디지털 공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문화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yong Yoon은 초국적 K-pop 팬덤이 K-pop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위치와 정체성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맥락화하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팬들은 K-pop을 매개로 한국이라는 국가뿐 아니라 특정 도시와 장소에 대해서도 문화적 친밀성을 형성하고, 그 경험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본고에서 말하는 ‘글로벌 플랫폼’은 특정 시설이나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이 지닌 감성 자원과 장소성이 K-pop을 비롯한 글로벌 문화콘텐츠와 결합하고, 초국적 팬덤의 참여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유·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복합적인 문화 구조와 확장적 가능성의 영역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특정 지역은 대중문화에 수동적으로 반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적 기억과 새로운 콘텐츠가 만나 지속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문화적 매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춘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대중가요에 축적된 감성 자원이 오늘날 K-pop 문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맥락화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송민호의 〈아낙네〉는 〈소양강 처녀〉의 가사와 멜로디 일부를 샘플링하여 익숙한 대중가요의 정서와 현대적인 힙합의 음악적 감각을 결합한 작품이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춘천이라는 장소가 직접 재현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소양강 처녀〉를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대중적 기억과 감성이 새로운 음악적 형식 안에서 다시 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의 대중가요는 단순한 회고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장르와 세대의 음악적 감수성 속에서 재해석되며 문화적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재맥락화는 특정 지역과 결합하여 형성된 감성 자원이 시대와 장르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콘텐츠와 접촉하며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춘천은 〈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 등 대중가요를 통해 축적된 감성 자원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K-pop의 영상 콘텐츠와 팬덤의 이동, 디지털 공유가 중첩되는 새로운 문화적 장소로 의미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별 사례만으로 춘천을 이미 완성된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가요를 통해 축적된 지역의 문화적 기억과 감성 자원이 K-pop을 비롯한 글로벌 대중문화의 유통, 초국적 팬덤의 참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장소 경험과 새롭게 접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의 사례는 지역의 기존 감성 자원이 시대별 대중문화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나아가 지역성과 세계성이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¹⁷ Kyong Yoon, "Between Universes: Fan Positionalities in the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K-pop,"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7(4), 2022, pp.188~201.

4. 결론

본고는 대중가요에서 K-pop으로 이어지는 대중문화의 변화 속에서 춘천의 감성 자원과 장소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춘천이 글로컬 플랫폼 도시로 확장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발표된 〈소양강 처녀〉와 1989년 발표된 〈춘천 가는 기차〉를 중심으로 노래와 춘천의 장소성이 관계 맺는 방식을 분석하고, 최근 K-pop의 영상 콘텐츠와 팬덤 문화가 춘천이라는 지역을 새롭게 의미화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춘천의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대중문화가 지역의 감성 자원과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소양강 처녀〉는 소양강이라는 구체적인 자연 공간에 기다림과 그리움, 상실의 정서를 결합하면서 춘천의 감성적 장소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혼과 갈대밭, 두견새, 계절의 순환과 같은 자연 이미지는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며 소양강을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감정과 기억이 결합된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노랫말의 서정적 정조는 작곡과 가창을 통해 대중음악으로 구현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유되었으며, 이후 소양강 처녀상과 관광 콘텐츠 등 현실 공간의 문화적 표상으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대중가요가 특정 장소를 노랫말에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향유와 문화적 기억의 축적을 통해 지역의 감성 자원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춘천 가는 기차〉는 춘천의 구체적인 지역 경관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춘천으로 향하는 이동과 회상, 청춘의 감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소 감각을 형성하였다. 특히 “5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과 “눈이 내린 끝없

는 철길”의 대비는 봄과 겨울, 사랑과 상실,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면서 춘천행 기차를 지나간 사랑과 자신의 현재를 되돌아보는 회상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차창과 한강, 철길 등의 이미지 역시 이동의 경험에 시간과 기억의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김현철이 직접 작사·작곡·가창한 이 노래는 노랫말과 음악적 분위기, 가창의 정서가 결합하여 이러한 회상성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여러 세대의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면서 새로운 음악적 감각과 청취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수용되었다. 따라서 〈춘천 가는 기차〉의 장소 감각은 노랫말만의 결과라기보다 음악적 표현과 반복적인 대중적 향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노래는 춘천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이라는 자연 공간에 감정을 결합하여 장소성을 형성하였다면, 〈춘천 가는 기차〉는 목적지의 구체적인 경관보다 그곳으로 향하는 이동과 청춘의 회상을 통해 장소의 감각을 구성하였다. 특히 경춘선을 통한 기차여행과 대학생 MT 등 춘천을 둘러싸고 축적되어 온 사회문화적 경험은 〈춘천 가는 기차〉의 이동과 회상의 정서가 수용될 수 있는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대로 노래는 춘천에 청춘·이동·회상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의 장소성은 노래가 일방적으로 생산한 결과라기보다 지역의 문화적 경험과 대중음악의 생산·향유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K-pop과 춘천이 결합하는 사례에서는 이러한 장소의 의미화 방식이 다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이 노래 제목이나 노랫말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뮤직비디오와 자체 영상 콘텐츠,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건, 팬들의 방문과 디지털 공유를 통해 새로운 장소 경험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BTS의 춘천

전역 행사와 〈In the SOOP BTS ver.〉 촬영지, 트와이스의 〈ONE SPARK〉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춘천대교 등의 사례는 영상 콘텐츠와 초국적 팬덤의 참여가 지역의 장소를 새롭게 가시화하고 의미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대중가요에서 노랫말과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장소의 감성적 의미가 오늘날에는 영상·팬덤·관광·디지털 매체가 상호작용하는 보다 복합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은 이러한 문화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개념이다. 이는 특정 시설이나 온라인 플랫폼, 혹은 구체적인 지역문화 정책 모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축적된 감성 자원과 문화적 기억이 글로벌 문화콘텐츠와 초국적 팬덤, 디지털 매체와 접속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개별 사례만으로 춘천을 이미 완성된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를 통해 축적된 지역의 감성 자원이 〈겨울연가〉를 비롯한 한류 콘텐츠의 장소 경험을 거쳐 최근 K-pop의 영상 콘텐츠와 팬덤의 이동, 디지털 공유와 다시 접속하고 있다는 점은 춘천이 지닌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춘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노래나 관광지가 개별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시대의 대중문화가 춘천이라는 장소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감정과 기억, 이동과 경험이 축적되고, 이러한 문화적 자원이 새로운 콘텐츠와 수용 방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양강 처녀〉에서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최근 K-pop 관련 사례로 이어지는 변화는 이러한 문화적 변이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춘천의 사례는 지역에 축적된 감성 자원이 시대별 대중문화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세계적 문화 흐름과 새

롭게 접속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K-Culture의 세계적인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축적이 춘천을 지역성과 세계성이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고찰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근자, 「대중가요에 나타난 부산항의 장소성」,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2023.
- 김일림·강옥희, 「1950년-60년대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 『경관과 지리』 30(4), 한국사진지리학회, 2020.
- 민경찬, 「한국 근대음악과 '고향」,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 서영희, 「조명암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고향의식」,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 손정삼,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유정, 「1970-80년대 서울 관련 대중가요의 두 모습」, 『한국문화와 예술』 10, 한국문화와 예술연구소, 2012.
- _____, 「대중가요 작사가 반야월(半夜月) 작품 연구」,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 Cohen, Sara, *Rock Culture in Liverpool: Popular Music in the Ma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Hur, JungYun "Christine," and Tony Kim, "Understanding Contraflow Pop-Culture Tourism: The Case of Transnational Fandom of South Korean Pop-Culture and the 'Hallyu' Tourism," *Journal of Tourism Insights* 10(1), 2020, Article 4.
- Kong, Lily, "Popular Music in Geographical Analys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2), 1995.
- Long, Philip, "Popular Music, Psychogeography, Place Identity and Tourism: The Case of Sheffield," *Tourist Studies* 14(1), 2014.
- Yoon, Kyong, "Between Universes: Fan Positionalities in the Transnational Circulation of K-pop,"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7(4), 2022.
2. 기타 자료
- 한국관광공사, 「소양강처녀상」,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85530e76-8914-4d36-a1a6-d2687db06598
- 한국관광공사, 「ITX 타고 가평·강촌·춘천 즐기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7a3fa5e3-e083-413c-9c80-34e0cda6ea2a
- 『시사인』, 「춘천 가는 기차는 추억을 싣고 사라지네」, 201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4>

Abstract

Emotional Resources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f Chuncheon through Korean Popular Songs and K-pop

Focusing on Its Potential as a Glocal Platform City

Kim, Yun-Hee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Chuncheon's emotional resources and sense of place have been formed and transformed through Korean popular songs and K-pop, and explores the city's potential as a glocal platform city. It focuses on Soyanggang Maiden (1970), Train to Chuncheon (1989), and recent K-pop-related cases. Soyanggang Maiden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huncheon's emotional sense of place by associating the natural imagery of the Soyang River with longing, waiting, and loss. In contrast, Train to Chuncheon reimagined the city through mobility, youth, memory, and nostalgia rather than through direct representations of its landscape. These songs thus accumulated emotional resources associated with Chuncheon in different ways. In the K-pop era, places are increasingly made visible and reinterpreted through music videos, transnational fandom, fan mobility, and digital media. Cases involving BTS and TWICE demonstrate how Chuncheon can acquire new cultural meanings through global popular culture and fan participation. By tracing these transformations, this study shows how Chuncheon's emotional resources have been continuously reconstructed across changing forms of popular culture. At a time when K-Culture is gaining greater global prominence, this cultural accumulation suggests Chuncheon's potential to develop into a glocal platform city where local identity interacts with global cultural flows.

Keywords Chuncheon; Emotional Resources; Sense of Place; Cultural Transformation; Korean Popular Songs; Poetic Sensibility; K-pop; Glocal Platform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